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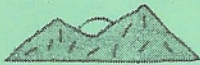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3주일(순교자 성월)
제28권 41호(가해) 2008·9·7

[묵상]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살 수 있기를



다만 하루라도...
온전히

구상될 하상 바오로 · 만화가

“엄마, 내일이 무엇이야?”
다섯 살 난 딸이 엄마에게 물었다.
“내일은 ... 글썸다?#@!?”
오늘을 자고나면 오는 날이지.”
자고나면 온다기에 일찍 잠에 들었던 딸
새벽이 되자 엄마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
“엄마, 지금이 내일이야? 맞지?” 하고 물었다.
“아냐! 지금은 오늘이야.” 엄마의 대답이다.
가우뚱거리며 딸이 중얼거린다.
(그럼, 도대체 내일은 뭐란 말이야?#@!?)
내일은 분명히 다가올 것이지만
현실이 아닌 가상(假想)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 오늘만이 진짜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전부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생일이다.
네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임을 깨닫고
오늘이 가기 전에 매 논 것을 풀자.(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중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베론 청년모임 매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홍찬기 대건 안드레아와 심재순, 권재석 레오
	(생)구영애, 김석기 스테파노 가정, 방우리 레지나, 박선규 라파엘, 문연주 리오바, 공현정 루실라, 이규호, 신정원 마리아, 김정은 캄파
주 일 낮 미사	(연)정진표, 정운봉 베드로, 정형두 바오로, 이현호 요한, 최복덕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박석규 베르나르도, 김시형 시릴로, 황만근 베드로, 엄익수 바오로, 엄은섭 도로테오,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윤바오로
	(생)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장정숙 크리스티나, 김철민 요한, 정순석 레오가정, 정중로 안토니오 가정, 국세찬 세바스찬 가정,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권순봉 요안나, 윤안토니오와 세라피나 가정, 박정현 로사, 김남호 율리오와 윤정 레지나와 지원 임마쿨라파, ME참가부부와 봉사자들,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에제키엘(Ezekiel) 33,7-9

화답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전례성가65, 사순 제3주일 A해와 같음>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앞에 나아가세,
노랫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어서와 앞드러서 조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말라.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내 일을
보고도 시험하려했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3,8-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성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도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8,15-20

영성체송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주 하느님, 제 영혼이
주님을 이토록 그리워하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33	343
봉헌	361	265,230
성체	363	307,298
파견	430	345

8.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불안과 가책을 느끼게 된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전과 같이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
란다. 그 때 “당신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러한 일은 신앙생활 중 하느님과 맺는 관계, 타인과 맺는 관계
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성경말씀 :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
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
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
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
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
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
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
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루카 15,1-7)

성경말씀 :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아들
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
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쟁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
리고는 그곳에서 나쁜 친구들과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
을 전부 허비하고 말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내 아버지
의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돌 것인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
나.’ 하고 중얼거렸다. 결국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조차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일할 것을 결심하고 일어나 아버지
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는 종들에게 일켰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루카 15,11-24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치유와 구
원사업을 계속하여 주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
사, 곧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목적이다.

(◆계속 - CBCK 제공)

사랑의 충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충고를 해 준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지금도 저의 건강을 염려하시면서, “신부님, 살을 좀 뺐으면 좋겠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런 부모님의 충고가 다 큰 자식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자식들에 대한 충고가 이어지는 까닭은 부모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당신들의 가슴 안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저에게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충고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단은 서로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도 하지만, 사실을 고백하면 나에게서는 잘못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가 만약 나의 가족이었다면, 그를 사랑하기에 용기를 가지고 그의 잘못에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마태 18,15). 복음은 다른 사람을 대동하거나, 교회에 알리기 전에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와 단둘이 만나라고 강조합니다. 복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형제자매임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밖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남들이 모르게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충고를 합니다.

죄를 타이르고 충고를 해 주는 것은 형제를 대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토대를 둡니다. 참으로 가까운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서슴없이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충고로 인해 관계에 금이 가고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가 형제보다도 가까운 사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친구에게 기꺼이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는 두려움보다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을 지닌 까닭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둘이 만나서 타이르고 충고하는 것은 먼저 그를 향한 열린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에게 충고할 때, 율법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충고의 토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충고는 힘을 지니고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충고가 법과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할지라도, 잔소리처럼 쉽게 흘러들게 됩니다. 사랑의 충고를 하기 위해 우리는 잘못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타이르기 전에, 먼저 그를 사랑하기 위한 토대에 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고 충고하면 잔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충고하면 그것은 나의 충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고가 됩니다. 나의 충고를 통해 주님께서 그의 잘못과 부족함을 채워 주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김영춘 베드로 신부<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해설자	강정현 시몬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강정현 시몬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최영식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황지영 안젤라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비/카슨 1,2반	제물봉헌자			P.V. 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7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9월14일(주일)은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 추석으로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시다.

●연도와 분향: 14일 주일 낮미사 중

◆ St. Margaret Mary 본당 연례 로미타 축제 피날레

- 오늘 주일(7일) St. Margaret Mary본당 (25511 Eshelman Av, Lomita)
- 게임, 다민족 음식, Rides, 경품권 판매 \$1, Live Entertainment(백삼위 주일학교의 애나, 린다, 엘리스 정 3자매가 오후5시 북춤 등 한국고전무용을 선보입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오늘 주일(7일) 개학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백삼위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오늘 주일부터 개학합니다. 방학동안 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새로운 자세로 미사와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단체나 개인이 교실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정리해주시고, 책상과 의자를 다른곳으로 이동했을 경우 반드시 원위치로 옮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새학기 등록: 주일미사 전,후
- 주일학교 등록비(1년분):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부터는 무료(9월8일 이후부터는 \$10씩 추가)
- 자모회비: 한 가정당 \$40
-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문제로 미등록 학생은 수업 받을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780-0369 강아네스 교장
- 한국학교 등록비(1학기분): 첫째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 \$100(교재비 \$50 별도) ☎ (310)347-8765 이헬레나 교장

◆ 제38회 한국의 날 장터에 '백삼위 음식 부스' 운영

- 일시: 9월25일(목)~28일(주일) * 백삼위 대견회 주관
- 장소: LA서울국제공원(구 아드모어 공원)
- 목적: 백삼위 어린이들이터 조성 기금 마련
- 참가음식: 매추리구이 외 6종 ●기금 목표액: \$25,000
- 음식 바자회 티켓 판매 \$10: 주일(특전)미사 전후
- 각단체 및 교우들의 적극 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봉사 일정: 25일(목)-토런스동/북구역, 26일(금)-하버/카슨·토런스 남구역·원서회, 27일(토)-P.V.구역·배론청년회·원서회, 28일(일)-토런스 서구역·배론청년회·원서회
- 문의: 대견회 정동호 상사바오로 회장 ☎(310)780-9055

◆ 고 김동옥 요아킴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 김옥보 안나 자매(하버/카슨3반)의 부군이신 김동옥 요아킴 님이 지난 1일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4세.
- 연도: 오늘주일(7일) 낮 미사후 성전
- 장례미사: 8일(월) 오전 9시, 장지: 그린힐스

◆ 구역장/반장 회의 및 연수

- 오늘주일(7일) 오후 1시~5시, 강당
- 소공동체 활성화와 한국의 날 축제 장터에 음식부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한 방안이 토의됩니다.

◆ 남가주 한인 M.E. 제62차 주말 부부 수료자 환영식

- 일 시: 오늘주일(7일) 오후 6시30분, 강당
- 백삼위 부부 4쌍: 송호창 요셉 & 하현 마리아, 김정엽 미카엘 & 김명 스텔라, 김성현 유스티노 & 희연 루시아, 이남현 막시모 & 정아 리디아

◆ 장례절차에 관한 세미나

- 일시: 9월21일(주일) 오후 1시 강당
- 내용: 장례 준비 및 절차, 묘지와 관련된 보험 안내 등
- 문의: 사회복지분과 박홍룡 요셉 위원장 ☎ 283-5879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7일(주일): 소공동체 (김밥 \$4)
- 9월14일(주일): 성모회 (한가위 전신자 떡 나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구본엽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 은	김정엽	김종환	김태호	문향엽	민기남
	박음전	박정희	박종열	서병교	서영주	송기철
	송호창	신현화	엄세종	엄혜은	오수인	오일순
	유선식	유영희	이광우	이명자	이병우	이석진
	이영숙	이영희	전선미	조운영	천광락	최길주
	호경진	홍숙자				
	합계 : \$5,835					
미사헌금 : \$2,425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구본엽	김관기	김광자	김대우
	김 은	김정엽	김종환	문향엽	민기남	박정희
	박종열	송기철	송호창	신현화	엄세종	엄혜은
	오수인	유선식	이광우	이명자	이병우	이영숙
	이영희	조운영	천광락	최길주	호경진	홍숙자
	합계: \$2,800					
	감사헌금: 천광락, 배태임, 정순석					

공지사항

◆ 백삼위 골프회 9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9월20일(토), 티오프 오전 9시30분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서성용 배드로 골프회장 ☎ (310)686-3587

◆ 성모회 피정

- 일시 : 10월4일(토), 성모신심 미사 후
- 강의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대상 : 성모회, 자모회, 소공동체, 원서회, 안나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 회비 : \$10
- 신청 : 회장 오혜숙 루시아, 행사부장 김정심 크리스티나 ☎(310)490-9662

남가주 소식

◆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탄신 축일 봉헌 및 봉헌갱신식

- 일시, 장소 : 9월8일(월) 오후 7시, LA 성바실 성당
- 주례 : 김재섭 요한마리아비안네 신부
- 주최 : 파티마 세계사도직(푸른군대) 서부평의회 ☎(323)818-1285

◆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제12회 정기 협회전시

- 일시 : 9월12일(금, 리셉션 오후 6시)~25일(목)
- 전시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Wilshire Bl. #502 LA)
- 백삼위 본당 김윤진 카타리나 자매 등 30명 작가 작품
- 지도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문의 : 회장 김원실 메리디나 ☎(213)365-8285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동호회 제2회 정기연주회

‘유빌라테’는 작년에 결성된 가톨릭 성가를 사랑하는 음악인들의 모임으로 창단연주에 이어 올해 두번째 연주회를 갖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9월26일(금) 오후 7시30분, LA 성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 연주곡목 : 모차르트의 미사 'Brevis' K.65 외-
-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 지휘 : 김경숙 클라라

◆ 제 3회 남가주 한국 순교자 현양대회

- 때, 곳 : 9월28일(주일) 오후 3시30분, LA 대교구 주교좌 대성당(555 W. Temple St. LA)
- 주례 : Gabino Zavala 샌게이브리얼 지역 주교, 남가주 한인사제단 공동 집전
- 주관 : 성 마리아 엘리사벳 성당(롤렌하이츠)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및 연수	오후 1시~5시, 강당
----------------	--------------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배태임 안나 781-9199 9/12(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정기은 비오 618-9775 9/13(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폴라스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472 9/19(금) 오후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박정애 소화데레사 618-8499 9/5(금) 할리웃보울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박재철 요왕 530-3699 9/21(일) 오후 5시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9/15(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9/19(금) 오후 7시45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이경수 헬레나 530-0357 9/9(화) 10시30분
	3	강은전 켄마 214-2290	강은전 켄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이용식 배드로 516-0818 9/12(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1	정정숙 율리아 365-4721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최기남 아코모 891-1527 9/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오세피나 997-9006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9/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종문 아놀드 377-0450 9/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 2008~09년도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진을 소개합니다. ◎

 주일학교 교사진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지도수녀 : 구 마리아네수녀님
 청소년부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교 장 : 강혜원 아네스

초등부 주임 : 김정심 크리스티나

❖ 초등부

- K : 임은영 올리비아
류수정 클라라
- 1학년 : 오현주 로사, 조안젤라
- 2학년 : 이종미 카타리나, 나운아 안젤라
- 3학년 : 이진원 루시아, 이기숙 엘리사벳
- 4학년 : 송주영 크레센시아, 이상용 엘리아
- 5학년 : 유지숙 그레이스,
황선홍 그레고리오

중/고등부 주임 : 서정우 프란치스코

❖ 중등부

- 6학년 : 모은기 타데우스, 강형모 리오
- 7학년 : 박주현 사무엘, 신동윤 빈첸시오
- 8학년 : 서정우 프란치스코, 김유환 요한

❖ 고등부

- 9학년:현젤리 베로니카, 박영수 케시,다미엔
- 10학년 : 유미카엘, 김엘리사벳
- 11 /12학년 : 김낙기 바오로, 임인영 바바라

- ◆밴드부 : 나운아 안젤라
- ◆전례부 : 육재민 미카엘
- ◆보조교사: 이영숙 수산나

 한국학교 교사진

지도신부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지도수녀 : 구 마리아네 수녀님
 청소년부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교 장 : 이해레나 헬레나

- | | |
|---------------|----------|
| ● 개나리 2반(유치부) | 박현주 카타리나 |
| ● 개나리 2반(유치부) | 윤경민 |
| ● 장미 1반 | 이은지 수산나 |
| ● 장미 2반 | 박영희 아가다 |
| ● 진달래반 | 모효숙 클라라 |
| ● 민들레반 | 김본경 율리아 |
| ● 채송화반 | 김화경 스텔라 |
| ● 무궁화반 | 박재석 마이클 |
| ● SAT II 준비반 | 구연옥 |